

거점 친환경 미생물 지원센터 개소 무주군, 한우 수급 안정화 총력

장수군, 원거리 농업인 불편 해소·친환경 유용 미생물 근거리 보급체계 구축

장수군이 지난 27일 거점 친환경 미생물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은 최훈식 군수, 장정복 군의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거점 친환경 미생물 지원센터는 장계면 장부로 334-11에 건물면적 165㎡ 지상 1층 건물로, 원거리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친환경 미생물 활용 증대를 위한 근거리 보급체계 구축에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거점센터에서는 친환경 유용 미생물 12품목 275톤을 생산 보급하며, 농업용 미생물 제제로는 생육촉진 미생물 제제, 병발생 억제 미생물 제제, 입상형 미생물 제제, 잣빛 곰팡이병방제, 클로렐라 등 9품목 175톤이 보급된다.

또한, 축산용 제제로는 송이치 설사억제제(정수바이오 2호)와 악취 저감제(2품목) 등 총 3품목 100톤이 보급된다. 농가 보급 시간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최훈식 군수는 "앞으로 장수군은



장수군이 지난 27일 최훈식 군수, 장정복 군의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점 친환경 미생물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미생물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학동마을 다목적체험관 준공·얼음썰매장 개장

진안군, 씨없는 곱감마을 휴양관 준공식 개최... 내달 19일까지 얼음썰매장 무료 운영

진안군 학동마을 씨없는 곱감마을 휴양관 다목적체험관 준공식과 얼음썰매장 개장식이 지난 27일 열렸다. 준공식에는 정춘성 진안군수, 김민규 진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전용태 도의원, 마을주민,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2층 건물로 구성된 다목적체험관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안군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신축했다. 음식과 농촌체험 프로그램 진행, 회의 및 워크숍, 마을공동체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학동마을은 다목적체험관 조성과 함께 체험휴양시설을 사계절 활용할 수 있도록 얼음썰매장을 개장했다. 얼음썰매장은 1월 27일부터 2월 19일까지 무료로 운영한다. 학동마을에서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슬로건으로 내걸고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킬 체험거리와 먹거리를 준비했다.

얼음썰매와 달고나 만들기, 쫄면·군밤 구워먹기 체험프로그램과 잔치국수, 어묵, 떡볶이, 라면 등 겨울음



진안군 학동마을 씨없는 곱감마을 휴양관 다목적체험관 준공식과 얼음썰매장 개장식이 지난 27일 열렸다.

식도 판매한다. 특히, 얼음썰매는 무료로 누구나 대여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행사 기간 동안 휴일 없이 운영된다. 정춘성 진안군수는 "학동마을은 인구감소와 주민의 고령화 속에서도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를 통

해 마을공동소득 증대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마을만들기 1번지, 진안!'을 대표하는 마을"이라며 "진안군의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한우 공급 과잉현상으로 가격 하락세 예상 수급관리 추진

무주군이 한우 공급 과잉현상으로 가격 하락세가 예상되면서 올해 수급 관리에 나선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한우 품질 향상 지원, 판매촉진 활성화 등 수급조절 조치를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한우 수급 안정화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무주군의 경우 한우 사육 농가수(2018년 300호, 2022년 243호)는 감소하고 있으나 한우사육 두수(2018년 7,580두, 2022년 8,692두)는 증가 추세다. 이에 군은 한우 농가 경영비 지원을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암소 도축장려금과 송이치 출하수수료를 지원해 농가 경영비를 절감, 농가 부담을 덜

어주기로 했다. 암소도축 장려금은 두당 15만 원을 지원하고 출하운송 수수료의 경우 두당 5만 원을 분기별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한우농가 경영안정 대책 일환으로 사료값 상승에 대비해 TMR 사료 구입 등 고품질 한우생산 지원사업에 2억5천만 원(2022년 1억5천만 원)으로 확대했으며, 농업관측센터에서 발표되는 한우수급 동향 정보를 수시로 농가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농업정책과 김완식 과장은 "군은 한우농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 축산관련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전북형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

진안군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난임 시술비 추가지원 사업은 난임 시술 건강보험급여 적용 횟수 소진 이후 추가 난임 시술을 하는 경우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전라북도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여성으로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종료자이다.

기준중의소득 180%이하 대상자에게 최대 110만원을, 초과자에게는 최대 90만원까지 1인당 최대 2회까지 추가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대상자에게 신선배아(9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7회) 최대 50만원, 인공수정(5회)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송미경 보건소장은 "추가 지원사업을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 증가로 인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063-430-8539)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장수군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2일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총 28명을 모집한다. 이번 공공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개 사업으로 추진되며,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대상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장수군민으로 취업 취약계층 등 지역경제 전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하거나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휴·폐업한 자, 청년 등을 우선 선발한다. 이달시 기준 초과자도 후순위 선발할 계획으로 일자리를 원하는 주민 누구나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사업별 자격요건 및 근로 능력,

재산·소득액, 취업 취약계층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한다. 참여 신청은 다음 달 6일까지 민생경제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최종 선발자는 2월 선발해 3월부터 사업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최대 4개월까지이며 주 5일, 15~30시간 이내 근무 원칙으로 최저시급 시간당 9,620원이 적용되며 참여자들은 행정보조 및 환경관리지원으로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최훈식 군수는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위기에 처한 주민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민생경제과 청년미래팀(063-350-219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 통

무주군, "부동산특별조치법 등기신청 서두르세요"

무주군은 부동산특별조치법의 등기신청이 임박해지면서 확인서를 발급 받은 신청인에게 등기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다음달 6일까지 등기신청을 하여야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기한을 놓치면 발급된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돼 등기를 할 수 없다.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쉬운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다. 군은 특별조치법 시행기간 동안 접수된 494필지 토지 중 각각 취학된 114필지를 제외한 380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 군은 확인서발급 수령 및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공문 발송 및 문자서비스, 전화 안내를 통해 실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등기 절차 이행을 지속 안내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용역보고회 가져

진안군은 제4단계 금강·섬진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및 2021년 이행평가에 대한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용역보고회에는 정춘성 군수를 비롯해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제4단계(2021년~2030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과 2021년 이행사항에 대한 결과, 향후 계획 및 총량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용역 결과 진안군 대부분 단위유역이 할당부하량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축사육두수 증가로 오염부하량이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삭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군은 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축사폐입,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증설 등 삭감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